

신년특집/78年度 양계업을 내다본다

肉鷄부문

消費는 증대되나 供給부족으로 호황누릴듯

신 정 일 / 유일농원 영업부장 前대한양계협회 김정소장
주소: 서울시영등포구오류동 11-44 유일농원

1. 77년도 현황

가. 육계가격

75년부터 시작된 육용업계의 호황은 77년도에 가장 그 정점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쌀 수확량이 지난 74년도에 농정의 숙원이었던 3

천만섬 목표를 달성한 이후 3년간 계속 증산되어 77년도에는 4천만섬대를 돌파했듯이 육용업계도 75년부터 3년간 계속 경기의 상승현상을 나타내어 육계 생산자가격 kg당 800원이라는 숫자가 양계인들의 귀에 매우 익숙하게 되었다. 77년도에 형성되었던 육계가격의 추세를 간추려 보면 표 1 과 같다

표 1. 77년도 육계가격 동향(77. 12. 5 현재)

구분 월일	시세 (원/kg)	상 황 및 분 석	지 속 기 간	비 고
1. 8	700	• 생산량 부족현상(76. 11월 출하 초생추)	• 1월 초순 약 10일간 700원선	
1. 10	600	• 유통매개 체의 의도적인 작용개재 유추	• 1월중순~하순까지 약 15일간 약세 지속	
1. 20	550	• 강추위로 구매력 감퇴		
1. 25	600			
2. 17	750	• 금년 구정의 생산물출하 특징은 상인과 양계장과의 예약제도	• 구정을 전후로 1월하순부터 2월하순까지 약 1개월간 높은가격 유지	
2. 27	550	• 2. 27의 시세 급락 이후 계속 소비침체와 저시세 지속	• 2월 하순부터 시작된 번덕날씨와 소비불안 등으로 인한 저시세는 뉴켓슬 피해로 인한 생산량 격감으로 4월 중순의회복예상을 따돌리고 3월, 4월 계속 2개월간을 지속하다가 5월중순에 접어들면서 급상승 시작	
3. 17	480	• 77년도 전반기 최저시세(소비침체)		
4. 1	500			
5. 9	600	• 5. 5 어린이날 캐칭, 소비급신장 • 77. 5. 8 어버이날 휴일 육계가격 급상승		
5. 12	700	• 5. 12~13일을 정점으로 이후 서서히 하락		

5. 20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20 이후 서서히 상승 (시외 차량 대상시세 600원/kg) 		<p>40원 강세. 원인은 부민 단지를 비롯한 인천지역이 뉴캐슬피해로 양계중단, 인천·부천·화곡·영등포시장의 중상이 부천과 안양으로 집중된 결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16경 성남 판교지역 뉴캐슬 피해로 덤핑출하
5. 28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 이후 보합세 혹은 서서히 하락 		
6. 10	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기철 우려했으나 시세 계속 호조 • ND 계속 발생 (일산지역 강세) • 사료회사의 육계사료 생산중단으로 안양지역 일부생산자 생산물 덤핑 (620원/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초순 이후 7월초순까지 약 1개월간 계속 보합세 (주말하락세, 주초상승세—주말소비현상) 	
6. 30	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가뭄뒤 6. 30가랑비 내림(장마서곡) • 7. 1 부가세및 市内 축산금지의 서울시 조례발효일 • 7. 3 한국, 이란 월드컵축구예선(부산) • 7. 8밤 안양, 영등포집중호우. 7. 11까지 교통완전 두절. 안양지역 양계피해 막심 • 7. 21부터 30℃ 이상 불별시작. 7. 31 일요일 최고온도 대구 39.5℃ (35년만의 폭서) 8. 2 소나기및 바람으로 더위 주춤. 8. 5까지 완전히 시원한 날씨로 되돌아감 • 8. 11 말북
7. 5	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초순부터 상승시작 		
7. 9	700			
7. 15	750			
7. 21	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21 이후부터 8. 30까지 계속 강세지속 	
7. 26	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일부생산자 800원 출하 		
7. 8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복중 최고시세 (77년도 최고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시세 약 5일간유지 	
8. 11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지역 일부 생산자쌈미 육계 900원 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7밤 대전지역 폭우 348mm 경부, 호남선 불통 	
8. 15	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북이후 하락세이다가 이틀뒤 다시 800원으로 상승 유지 		
8. 17	800			
8. 30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1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9. 14일경 최저 시세 형성후 9. 27 추석까지 서서히 상승 • 추석육계시에 변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14경 서울 원거리지역 차량대상 600원代 형성
9. 14	640			
9. 19	680			
9. 27	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추석의 경기는 기대만큼의 호황이 아니었음.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 침체되었고, 전반적인 상품의 구매물동량이 감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27 추석
10. 1	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닭의 체화 이월과추석 뒤의 비수요기를 맞아 강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예년과 같은 급강하의 경향이 아니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10. 3까지 3일간의 대연휴
10. 10	부천 580 현두리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근교와 현두리의 중상과 시세차이 100원/kg까지 형성된 특이한 현 		

신년특집/78年度 양계업을 내다본다

		상 나타남.	상당한 기간동안 느린빈포의 소망스러운 현상을 나타냄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번두리지역 460원 까지 거래(차량대상)로서 77년도 최저시세 형성(3월 중순시세와 비슷) 	
10. 17	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17부터 상승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17 월요일
10. 20	600		
11. 1	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1 번두리 차량대상 600원 	
11. 6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6부터 급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두및 호흡기 피해로 생산량 감소 초생추 부족현상 심화
11. 12	750		
11. 17	780		
11. 21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19부터 김장철 본격 시작 배추시세 매우 강세 300~350원/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20부터 계속시세하락 11. 30 김장철 마무리 현상(금년 김장철은 76년도 겨울의 강추위에 자극 받아 관심도가 매우 높았으며, 따라서 육계시세에 많은 영향을 미쳐야 마땅하나 사실은 김장철 육계시세중의 사상 최고라는 기현상을 나타냄)
12. 1	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두리 차량대상 650원으로 77년도 김장철기간 동안의 최저시세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22 서울 첫영하 날씨 쌀쌀해짐(소설) 11. 28 날씨 추위짐. 첫눈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5 현재 소비가 활발치 않으며 보험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1 함박눈
12. 15	650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22의 100억달라 수출 달성 기념행사와 연말 금융진축의 완화로 경기 호전 예상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만의 포근한 날씨 연 10일째 계속 12. 22 수출기념일 12. 25 크리스마스 12. 31 연말
12. 25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경제사회의 연말경기가 매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시작될 때 비하여 금년의 경우는 15일 현재까지 불붙고 있지 않아 연말경기의 침체를 예고하는듯하여 육계경기에도 영향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참고 1. 시세는 서울근교의 오토바이중상을 기준으로 함(번두리의 차량대상은 kg 당 20~40원 낮은 것으로 간주)
2.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를 기준, 지방시세도 서울이상으로 안정된 가격율형성. 특히 공업과 관광의 신흥지대로서 여수, 목포, 광주지역의 소비급신장은 팔복할만한 사실
3. 자료는 필자가 기록 유지하는 Data에 의함

77년도의 최저시세는 3월중순과 10월 중순에 형성된 460~480원/kg이며, 최고 가격은 8월 중순의 850원/kg이다. 3월 중순에서 4월에 걸쳐 나타난 저시세는 뚜렷한 특징적인 이

유없이 다만 소비침체로 인한 결과였는데, 2월하순부터 시작된 번덕스런 날씨와 더불어 사회경제 심리의 불안정이 소비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삼복중에 형성된 년중 최고시

세 800원/kg은 복더위의 육계소비 현상을 더욱 실감케 하였으며 서울근교의 일부 생산자는 썬미육계를 900원/kg까지 출하 하였다

77년도 육계가격동향중에서 특징적인 몇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7년도 육계 시장형성의 특징〉

1. 1월 중순경의 강추위로 수요감퇴
 2. 년초 1월 10일의 육계시세 폭락은 유통매개체의 의도적인 작용으로 추정.
 3. 3~4월의 소비침체와 5월의 소비급등은 모두 날씨와 휴일에 관계
 4. 딸기철의 시세하락을 우려했으나 계속호조
 5. 뉴깃슬 피해로 인천지역 집단생산지의 육계업이 쇠퇴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판도에 변화 나타남.
 6. 질병과 사료문제로 생산효율 저하.
 7. 35년만의 폭서는 육계소비의 촉진역활을 함.
 8. 복중 최고가격 800원선 돌파.
 9. 추석대목 기대만큼 좋지 아니함, 일반경기의 침체로 他상품 共히 구매력 감퇴현상.
 10. 추석닭의 체화에도 불구하고, 추석뒤의 시세하락은 급강하 현상이 아님.
 11. 추석뒤 서울근교의 중상과 변두리의 대상 사이에 시세차이가 매우 큼.
 12. 76년 겨울의 강추위로 일반 시민의 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배추시세 매우 강세이였으나 육계가격 형성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김장철 육계시세 사상최고의 기록 남김.
 13. 당국의 생계시장단속이 없었음.
-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년중 계속된 호경기는 생산자에게 “입추는 돈”. 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나 76년도 종계분양수수

경기의 호불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소비추세가 급진장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소비신장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기전망에 대한 진단은 생산량의 과소로서 소비증가 여부와 결부시켜 결론을 내린다.

1975년도에 분양된 33만수의 종계로서 76년도를 보낸 양계인들은 47만수의 육용종계가 분양된 76년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77년도에 대한 경기전망을 매우 염려하였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었다. 75년도의 종계 33만수와 76년도의 종계 47만수는 14만수라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었고 소비의 신장을 감안하더라도 무리한 증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76년도 10월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뉴깃슬 질병이 육계와 종계에 같은 피해를 입혔으며, 사료과 동으로 생산효율이 저하되어 전체육계 생산의 량이 예상만큼생산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77경 기동향을 살펴 볼 때 76년의 47만수 종계 수량은 절대량에 미달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용육용종계에 대한 요구량을 더욱 많아지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양계를 오랫동안 해 온 우리들의 기억에서 육계병아리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분명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잡종으로 교잡되어 생산되는 썬미병아리의 생산공급이 극도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썬미병아리의 개념과 썬미육계의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kg내외의 중량으로 상품화 되어 통닭 등에서 판매되는 썬미육계는 하나의 엄연한 산업분야로서 확대발전해가고 있지만 부화업계의 사생아인 교잡종 썬미병아리는 육계산업발전의 결과로 양계인들이 이에 대한 거부반응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때를 맞추어 대한양계협회의 불량추단속이가세하여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년특집/78年度 양계업을 내다본다

육계산업의 일익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던 이러한 썬미병아리가 사라지면서 이의 임무는 자연적으로 전용육계가 담당하게 되었고 동시에 육용종계 적정수량의 산출근거에 또 다른 하나의 확대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질병과 사료질저하라는 외적요인으로 인한 생산량감소의 사황을 논외로 하고 양계산물의 소비신장과 썬미병아리의 전용육계 임무 담당이라는 가장 큰 두가지의 병아리 수요 확대 요인을 생각할 때 1976년도의 육용종계 적정수량은 약 50~55만수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었다.

76년도에 종계가약 55만수가 분양되고 질병과 사료질저하의 외적요인이 없었다면 77년도 올해의 초생추 부족현상이 이렇게까지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며 육계시세도 적정이윤의 선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2. 78년도 전망

가. 77년도 육용계 적정수량과 분양 현황

우리나라 국민전체가 1년간에 소비하는 닭의 마리수는 약 몇 수나 되며 무게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농수산부가 최근에 발표한 양계진흥대책의 자료에 의하면 1976년도 국민 1인당 닭고기 수요는 평균 1.67kg, 전체 총수요량은 약 6만톤이었고, 1977년도 예측은 국민 1인당 1.95kg, 총수요량은 약 71,000톤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에 의한 우리나라 인구는 대개 3,600만명으로 나타난다.

닭이 식품으로 소비되는 형태는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큰 주류가 일반 가정에서 각종 음식으로 소비되는 형태로서 수당 중량은 최소 1.5kg에서 최대 2.5kg 정도까지이며 평균 약 1.8kg 정도의 닭이 전용육계이든 노계이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닭집이나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썬미계통으로 평균중량 1.0kg~1.3kg 정도가 대중을 이루고 그외 600g 내외의 삼계탕, 일반 음식점의

닭곰탕, 군남, 일반농가에서 소비되는 시골닭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당국에서 발표한 연간 총 수요량 76년도 6만톤과 77년도 71,000톤의 닭고기를 정육율 50%로 계산하고 전체 닭소비의 평균중량이 1.5kg 정도라고 추정하여 소비마리수로 환산한다면 76년도는 약 8천만수, 77년도는 약 9,600만수로 된다

약 1년전 언젠가의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소비되는 닭의 총수수를 약 8,000만수로 추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간 총소비수수에 대한구성요소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같이 분류하고 있다.

〈년간 소비수수의 구성내용〉

산란노계	1,500만수	
일반농가	1,000만수	
썬미육계	1,000만수	합계 8,000만수
전용육계	4,500만수	

위의 분석에서 산란노계나 일반농가의 소비 닭은 급격한 변동요인이 없으며 썬미육계와 전용육계사황은 항상 높은 진폭의 변동요인을내포하고 있다.

육용종계 한마리가 일생동안 생산하는 병아리의 수량은 대개 100~120수 정도가 된다. 이에 의하면 75년도의 분양종계 33만수는 76년도에 3,300만~4,000만수의 육계를 생산하였고 76년도의 분양종계 47만수는 77년도에 4,700만수~5,600만수의 육계를 생산한 셈이 된다

농수산부의 자료에 의한 연간 닭 소비수수 76년도 8천만수와 77년도 9,500만수에 비례한다면 78년도에는 최소 1억만수 이상이 생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산란노계와 일반농가 닭의 증가로 3천만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썬미병아리 생산이 없는 현재 전용육계가 7천만수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계 한마리

가 100~120의 병아리를 생산한다면 77년도에 분양되어야 할 육용종계의 적정수량을 약 65만수정도로 추산할수 있다. 65만수의 종계는 6,500만~7,800만수의 육계를 생산하고 노계와 농가닭 3천만수를 합하여 1억만수 내외의 총 생산수량을 형성하는 것이다.

77년도는 약 65만수정도의 육용종계가 생산분양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재는 어떠한가?

77년도에 분양된 육용종계에 대한 공식적인 정확한 자료는 없다. 흘러다니는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협 603호	40만수	
하바드	10만수	
하이브로		합계 약55만수
필 퀴	3~5만수	
스타브로		

위의 통계중에서 한협603호가 좀더분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사항중에서 조금씩 감소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올해의 육용종계 총 분양수수를 약 55만수 내외로 추산하면 과히 착오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77년도의 육용종계 적정수량 65만수와 실제 분양수량 55만수사이에는 무려 10만수 정도의 차이가 있다.

77년 12월을 맞이하는 양계인들은 78년도의 전망에 대해 두가지의 결론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78년도 육계업은 매우 호황일 것이며 병아리의 부족은 심각할 것이라는 사항과 둘째는 외국에서 도입된 순계에서 종계가 78년초부터대량 생산될 것이므로 이에서 초생추가 생산될 78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불황이 올 것이라는 결론의 두가지 사항인 것이다.

도입순계로부터의 종계생산은 어떠한가? 78년도 하반기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78년도 경기를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관심 높은 사항은 바로 이점인 것이다.

나. 도입순계의 영향과 78년도 종계분양 전망
천호부화장과 한일농원에서 도입한 순계로부터 종계(PS)가 언제부터 얼마나 생산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생산하기까지의 기간을 8개월로 생각하면 76년 9월과 10월에 도입된 순계가 원종계(GPS)와 종계(PS)를 거쳐 상업용 초생추가 생산되기까지는 24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도입순계는 78년 1월경부터 종계(PS)를 생산하게 되며 이 종계는 9월경부터 실용추를 생산하게 된다. 천호부화장과 한일농원에서도 실제 위와같이 종계를 분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단축방법으로 생산될수 있는 종계가 77년도 중반기부터 일부 생산되고있다는 가능성도 있으며, 77년 11월 19일에 발행된 천호편지 제32호에 의하면 도입순계로부터 생산되는 하이섹스 갈색산란계의 실용추가 최초로 78년 5월 1일에 첫 분양을 시작한다는 내용이고 보면 도입순계로부터 실용추가 생산되는 시기가 공식계산보다더 빨라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조기 생산될수 있는 이러한 종계수량은 77년도 종계분양수량에 영향을 끼칠만큼의 많은 수량이 아니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78년 1월경부터 공식적으로 생산될 도입순계의 자손종계가 대량으로 생산된다면 78년 9월 이후부터 병아리가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닭이 출하될 11월 이후부터 육계가격하락의 염려가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77년도에 약 40만수 이상의 육용종계를 판매한 한협육종농장은 78년도의 생산능력을 70만수 이상으로 확대시켰으며, 한일농원과 천호부화장은 각각 30만수 이내 분양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협의 육용종계 생산능력 70만수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금년도의 40만수와 동일하게 예정하고 한일농원과 천호부화장의 분양예정을 30만수씩으로 추정 한다면

신년특집/78年度 양계업을 내다본다

78년도의 육용종계 분양수량은 100만수가 된다.

최근 당국의 방침으로 결정된 종계(PS) 수입허가 예정수량 5만수와 국내의 기타에서 생산될 수 있는 소량의 종계(PS)는 78년의 종계분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77년도의 종계 적정수량을 65만수로 추산하였을 때 78년도에 종계 적정수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

최근 3년간의 종계 분양현황과 비교하여 추정될 수 있는 78년도의 육용종계 적정수량은 다음 표 2와 같다.

종계 80만수는 최소 8천만수의 실용초생추를 생산한다. 종계 80만수의 숫자는 우리의 귀에 매우 생소하지만 3개 육종회사에서 예정대로 모든 종계가 분양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수가 되므로 어떤 특수한 요인이 없는 한 78년도의 육용종계업체와 79년도의 육계업체는 불황이라고 판단됨이 마땅하다.

순계도입회사에서 생산될 종계는 78년 1월경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3월경이 되어야 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므로 앞에서 논의한 일반적인 9월 이후 불황전해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 엄격히 분석해서 3월경 이후의 대량생산 종계는 78년 11월경 이후에 초생추의 과잉 현상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또한 79년 1월경 이후부터 육계가격하락 형성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도 물론 순계도입회사의 3월 이후 종계생산량이 업체의 불황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가정

했을 때이며, 이것이 반드시 불황요소가 될만큼의 큰 수량이 못된다는 생각일 때는 결론은 또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순계도입사의 종계생산이 큰 영향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육계업의 불황현상은 79년도 1월 이후에 나타날 것이며, 전반적인 소비신장과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때의 불황현상은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질 것이고 오히려 염려되는 불황이 그렇게 빨리 예상되는 시기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다. 78 육계업 전망에 대한 결론

이상과 같이 분석한 78년도 육계업 전망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77년도 종계 적정예정수량 65만수에 비하여 실제 분양수수는 약 55만수로서 절대량이 부족된다.

2. 78년도의 전반적인 육계경기는 매우 좋을 것이며, 실용추 구입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3. 순계도입회사에서 생산되는 종계는 78년도의 육계가격하락 형성에 영향요소로 크게 작용치 아니할 것이며 불황이온다 하더라도 79년도 1월경 이후일 것이다.

4. 육용업체의 규모는 계속 팽창할 것이다

5. 사료의 질이 계속 불량하고 질병에 의한 생산효율 저하 현상이 계속 될 것이다.

6. 77년도 김장철의 경기 호황으로 78년도 9월 전후에 초생추 생산과 입추가 과잉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78년도 김장철(11월)에는 육계가격이 나쁜 요인이 많다.

표 2. 78년도 육용종계 적정수량 추정

구분 년도	실 제 분 양		적정수량추정		계 육 소 비		비 고
	수 수	신장율%	수 수	신장율%	년간 1인당 kg	신장율%	
75	33만		40만		1.58		세미병아리 생산소멸
76	47만	42.4	55만	37.5	1.67	6.3	
77	55만	17.0	65만	18.2	1.95	16.8	
78	(100만)	(81.8)	(80만)	(23.1)	(2.24)	(14.9)	